

대학과 지역발전 : 연구동향과 전망

박영한* · 조영국** · 안영진***

University and Regional Development : Reviews and Prospects

Young-Han Park*, Youngkug Joh** and Young-Jin Ahn***

요약 : 이 글의 목적은 지리학의 연구대상으로서 대학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며, 이에 관한 기존의 연구동향과 아울러 앞으로의 연구과제를 살펴보는 데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이래 대학교육이 양적으로 크게 팽창되었지만, 대학의 입지적 특성이나 지역적 파급효과, 지역발전과의 연계 등 지리학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다룬 연구가 극히 빈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글은 21세기 지식사회에서 지역발전의 핵심요소로서 부상되고 있는 대학의 역할을 고찰하고, 이를 지역발전과 연관시켜 개념적으로 파악하고자 했다. 또한 대학 연구가 활발하고 상당한 연구가 축적되어 있는 선진 제국의 교육지리학적 연구동향과 대학에 관한 연구중점의 변화를 개관하였다. 끝으로 대학과 지역발전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장차 다루어져야 할 몇 가지 연구과제를 논의하였다.

주요어 : 대학, 지식기반사회, 대학의 기능, 지역발전, 파급효과

Abstract : The paper is to examine the university as an object for geographical research and to review its related studies. Although the higher education system in Korea has much expanded its capacities since the 1980s, there are few studies that carry out geographical investigations on the themes including locational changes of universities, regional impacts of the university, and interactions between universities and regional development. Therefore, focusing on the university as an innovative element for the regional development in a coming knowledge-based society, this paper first tries to examine and conceptualize new roles and changing functions of the university in facilitating reg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It then reviews various studies of educational geography and research shifts on the role of the university in the context of the western developed countries. Finally this study suggests a series of research themes that we should investigate in the future.

Key Words : university, knowledge-based society, functions of university, regional development, regional impacts.

1. 서론

오늘날 대학은 과거와 다른 모습을 요구받고 있다. 우리는 지식이 산업발전의 핵심이 되고 사회·문화적 활동의 기초가 되는 지식기반 사회 및 새로운 창의적 기술과 정보를 창출하고 확산시키며 활용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지식경쟁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후기산업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 노하우와 같은 무형의 자원이 다른 어떤 자원보다 중시되고 있다. 자연히 지식의 창출과 혁신의

주체로서 대학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대학에서 축적된 지식과 기술을 국가 및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하려는 노력도 커지고 있다. 대학이 건전한 시민양성과 심오한 학술연구에만 매달리는 상아탑에 안주하던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오히려 대학은 전문인력의 양성과 함께 대학이 보유한 인력과 시설을 기반으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고 이를 밖으로 이전시킴으로써 국가 및 지역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혁신의 중심지로 부각되고 있다.

*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Seoul National University).

** 협성대학교 지역개발학과 조교수(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Regional Development, Hyupsung University).

*** 전남대학교 지리학과 전임강사(Full-time Instructor, Department of Geograph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광복이후 우리 나라에서는 고등교육에 대한 열망이 고조되고 경제가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대학과 대학생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 결과 대학교육은 이미 대중화의 단계에 진입한 상태이다. 2001년 현재 교육대학과 전문대학을 제외한 4년제 대학만 해도 161개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그 동안 대학은 고등교육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충족시키는 역할 이외에도 국가와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하지만 우리의 대학들은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과다한 교수당 학생수, 열악한 대학 재정 등 대학의 교육여건은 열악하며, 교육 프로그램은 사회변화와 산업발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에도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많은 대학들은 대학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사회와 무관하게 거의 유사한 계열과 학과를 백화점식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대학발전을 되돌아보면, 지난 반세기 동안 눈부신 양적 성장 이면에 심각한 질적 문제가 누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차하순, 1996).

세계화와 지방화라는 조류에 따라 국가와 지역의 경쟁력과 발전잠재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에 비춰 볼 때, 대학의 교육이념과 그 발전 방향을 새롭게 탐색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재정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유현숙 외, 1998). 이를 위해 대학은 교수와 연구에만 관심을 쏟을 것이 아니라, 지역과의 연계를 적극 모색하는 자세도 요구되고 있다. 그 일차적 노력은 대학의 위상을 지역사회의 지식 및 기술의 혁신과 전파의 중심지이자 '지역의 대학'으로서 지역의 사회 및 문화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거점기관으로 자리 매김하는 것일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학은 우선 정보, 기술, 지식의 중심센터로 그 역량을 키우기 위해 교과내용과 조직구조를 재편하고, 나아가 지역여건에 맞는 특성화를 추구하며, 지역사회에 열린 대학으로서 다양한 교육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大學研究教育を考える會, 2000).

우리 나라에서 대학을 지리학의 연구대상으로 삼아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찾아보기 힘들뿐만 아니라, 대학과 지역발전의 상호관계를 구체적인 논의한 것도 대단히 미약한 실정이다. 특히 1980년대 이래 우리의 대학교육체제가 양적으로 팽

창하고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지적 특성과 교육기회, 지역적 파급 효과와 상호작용, 지역발전과의 연관성 등을 다룬 연구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박영한, 1995). 따라서 이 글은 대학을 지리학의 연구대상이라는 관점에서 대학과 지역발전간의 관계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우선 새로운 지식사회에서 지역발전의 핵심 주체의 하나인 대학의 기능과 역할을 재검토하는 데서 논의를 시작하여, 대학을 지역발전과 어떻게 연관시킬 것인가를 개념적으로 정립하고자 한다. 이어 이와 관련된 연구가 상당히 축적되어 있는 독일을 중심으로 선진 제국의 교육지리학적 연구 동향과 아울러 대학에 대한 연구초점의 변화를 개관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대학과 지역발전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연구를 자극하기 위해, 대학에 대한 지리학적 연구과제가 무엇인가를 몇 가지로 나누어 논의하고자 한다.

2. 대학과 지역: 이론적 탐색

1) 대학의 위상 변화

21세기 지식사회를 누구 어떻게 주도해 나갈 것인가? 다양한 주체들이 상호 연계를 통해 개척해 나갈 것이지만, 대학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이다. 대학은 한 국가의 최고 지성들이 모여있는 기관이자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이를 전수하는 전진기지이다. 그래서 오늘날 대학은 상징과 이미지, 기능과 역할, 제도와 운영체제에 있어 중대한 변화를 맞고 있다. 기본적으로 상아탑으로 표현되어온 대학의 전통적 이념상은 지식사회의 도래와 함께 지식 및 기술의 산실로 바뀌고 있다. 학문추구의 내재적 가치가 여전히 중요하지만 사회적, 실용적 가치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도 점점 거세어지고 있다.

대학이 고도의 지적 문화를 계승하고 창조하는 장이라는 점에 대해선 별다른 이견은 없다. 대학은 오랫동안 학술적 이론과 방법론을 계발하는 '연구'와 이를 전수하는 '교수'를 양대 기능으로 하여 발달해 왔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 이와 더불어 대학의 공공에 대한 봉사, 즉 사회봉사도 대학의 중요한 기능으로 인식되고 있다(안계춘, 1992). 대

학은 학문탐구와 인재육성과 함께 대학이 보유한 인력과 각종 시설물을 활용하여 국가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기능도 수행해 왔지만, 앞으로는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대학들은 대외적 서비스에 힘쓰고,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잠재력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편으로 대학의 지역사회에 대한 문화적 통합기능도 강조되고 있다. 이는 봉사기관으로서 대학이 대학병원을 비롯한 도서관, 박물관, 체육시설, 연구단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폭넓은 시설물을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대학이 지역문화의 전승과 발전에 기여하는 문화계발 기능과 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사회계도 기능을 통한 기여도 적지 않다고 한다. 따라서 대학의 사회봉사는 지역주민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고, 각종 교양 프로그램의 활용을 통한 생활의 여유를 누리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정보를 손쉽게 얻게 함으로써 대학은 지역주민과의 공고한 결합을 바탕으로 지역 정체성과 새로운 지역상의 형성자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박영한, 1985; 天野郁夫, 1999). 다른 한편으로 대학을 지역발전을 위한 혁신의 주체로서 산학협력을 통해 전문지식과 실용적 기술을 해당 지역의 기업체에 제공하고, 양질의 기술인력과 유능한 졸업생들을 배출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중심기관으로 파악하는 관점도 중시되고 있다. 선진 국가들에서는 이미 대학-경제-지역 삼자간의 협력체계에서 대학이 지역의 산업활동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있다(박영한, 1998).

오늘날 대학들은 특성화와 경쟁우위를 지향하며, 또한 운영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대학은 현실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며 외부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사회경제적 변동에 수동적 반응이 아닌 능동적 대응을 위해 내적 변신과 구조개편에 나서고 부가가치적 경영에 힘쓰고 있다(Hall, 1997; Goddard, 2000). 따라서 대학은 과거보다 훨씬 폭넓고 현실세계와 보다 결속된 산출을 내놓고 있다. 해당 지역과의 연대강도

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학은 지역사회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적 파급효과를 이제 결코 과소 평가할 수 없게 되었다. 대학의 기능과 역할을 논의함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교육경제학적, 교육사회학적 측면과 아울러 교육지리학적 측면도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지식사회의 심화된 경쟁구조 속에서 많은 대학들은 그 생존과 함께 장래 진로를 고심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도 지역활성화의 잠재적 추동자로서 대학에 깊은 관심을 쏟고 있다.

2) 대학과 지역의 관계: 개념적 틀의 구성

그렇다면 대학은 지역사회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다시 말해 대학이 지역과 얼마나 결합되어 있으며,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는 어느 정도인가? 대학은 교수, 연구, 봉사라는 핵심 기능을 통해 지역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미 알 수 있듯이 대학이 지역과 맺는 관계 및 지역에 미치는 영향력은 다양하며, 장·단기적 파급효과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대학의 파급효과는 대체로 인적자본론에 입각한 교육경제학적 접근과 근대화론을 위한 가치창출에 역점을 둔 근대화론을 통해 논의되어 왔다. 하지만 대학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이러한 다소 거시적이고 추상적인 설명만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없다. 특히 지리학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대학과 지역발전, 대학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박영한, 1995; 失田俊文, 1999).

오늘날 대학의 역할과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대학의 지역과의 관계 및 상호작용, 그 파급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분석 틀이 필요하다. 대학은 원리적으로 막대한 투입(inputs)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유·무형의 다양한 산출(outputs)을 내놓는 복합적 조직체로 발전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이 국가나 지역, 주민들에게 일종의 수요자이자 공급자로서 대외적 파급효과는 지대하며 그 유형적 성격 또한 변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느냐와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변화를 유발하느냐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하나의 유용한 분석방법은 시스템(system) 모형을 원용하여 대학이 지역에 기여한다는 전제 아래 대

학과 지역간의 상호작용 과정을 통한 지역에 미치는 다양한 파급효과와 조절기제를 하나의 틀 속에 넣어 그려보는 것이다.

우선 먼저 오늘날의 대학은 전래의 대학과 달리 구체적인 목표 아래 조직·운영되는 기관으로서, 다양한 산출을 내어놓기 위해 일련의 투입을 조달하는 부분체계로 파악될 수 있다(Bauer, 1997; Luger et al., 1997). 이때 전형적인 투입요소로서는 자본, 인력, 시설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일반 소모품과 각종 장비 및 시설, 다양한 외부 서비스와 폭넓은 숙련도를 가진 노동력, 국가 및 공공부문과 아울러 민간부문의 지원 및 보조금, 하급학교를 마치고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 등의 형태를 띤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대학이 입지한 지역의 제반 여건, 즉 '지역환경'(regional milieu)¹⁾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투입요소가 된다.

이러한 투입은 대학의 기능에 의거하여 가공·전환되는 과정을 거친다. 첫째, 교수기능을 바탕으로 하여 재학생에 대한 지식의 전수 및 졸업생의

배출을 통한 인재육성과 인적자본의 창출 및 이전을 들 수 있다. 이를 지역의 관점에서 보면, 시민의 양성과 함께 급변하는 경제환경에서 특정지역의 사회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 내고 앞선 이념과 사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숙련되고 창조적이고 재능이 있는 인적자원을 유치하거나 보유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교수기능과 관련하여 대학이 지역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효과는, 인재의 지역 내 순환이 강화되고 노동력의 자질이 높아지고 결국 기업의 생산성이 제고될 때 구현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대학의 학술 및 연구활동을 통해 기초지식의 축적과 함께 실용적 전문 지식과 기술정보를 포함한 노하우를 기업이나 공공기관, 기타 조직으로 이전하는 것을 들 수 있다. 학술 및 연구활동을 통한 기초지식의 창출은 대학의 중요한 존립 근거가 된다. 하지만 오늘날 대학의 연구기능에서 기초지식의 축적에 그치지 않고 기술혁신을 통한 응용적 역량이 강조되고 있다. 기술혁신은 보통 신제품의 개발이나 상업화에 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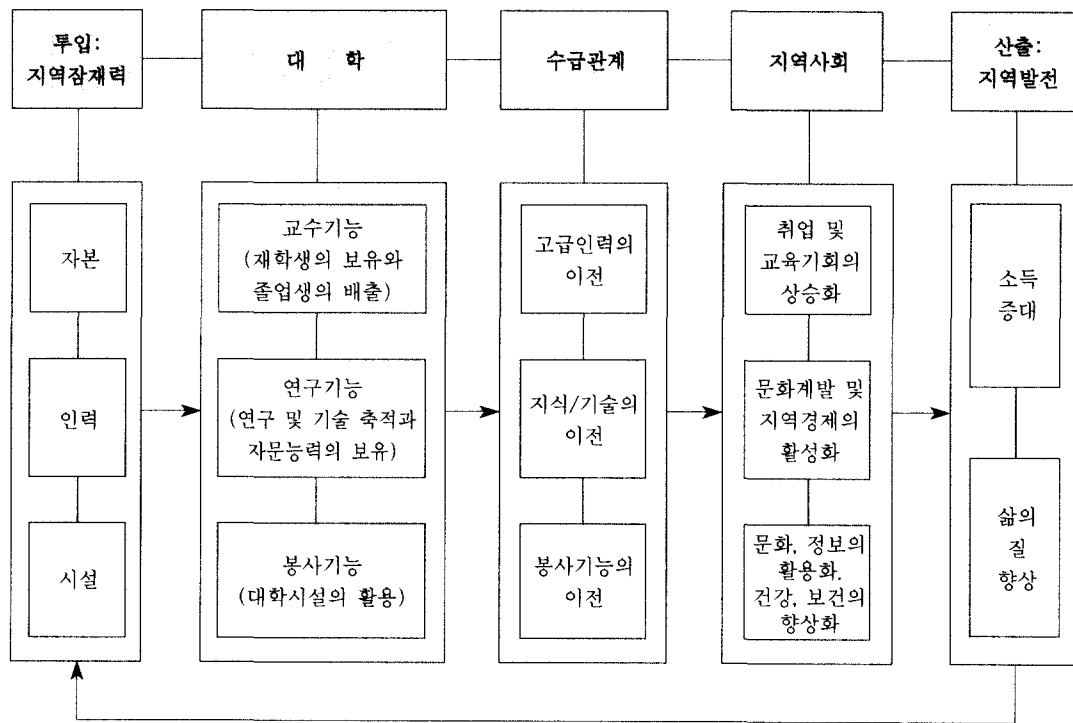


그림 1. 대학의 기능과 지역(사회)의 결합을 통한 지역발전: 개념도식
출처: 박영한(1995: 4)

과 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한 대학의 연구프로그램에는 기술특허나 인허가 지원 사무소 설치, 고등기술센터 및 각종 창업보육센터의 확충, 산학공동연구프로젝트의 추진 등이 포함된다. 지역의 관점에서는 이를 통해 기업체의 비용 절감과 매출증가, 고용확대와 더불어 신기술에 근거한 신규기업의 창업과 시장에서의 높은 생존율을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전술한 바와 같이 대학의 기능에는 사회봉사 및 각종 서비스활동도 포함된다. 이러한 활동의 주된 고객은 대학의 정식 등록생이 아닌 지역주민들과 기업체, 여러 민간부문과 시민단체, 그리고 정부기관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은 이러한 서비스기능을 제도화하고 다양한 조직과 시설, 그리고 교수들의 자문활동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대학은 지역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해 왔다. 공공기관이나 사회단체들은 대학의 고위관리나 명망 있는 교수들을 각종 위원회나 이사회에 참여시켜 중요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문제를 다루는데 리더십을 발휘해주시기를 요청해 왔다. 대학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일차적으로 자체의 앞선 학술적, 기술적 자원을 활용해 왔다. 이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을 둘러싸고 대립하는 이해집단간에 합의를 도출하는데 도움을 주는 도덕적 권위와 정치적 파급효과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남치호 외, 1997).

물론 대학은 '기능-입지체계'(Funktion-Standort-System)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의 구성요소로서 교육기능을 중심으로 일정한 면적을 요구하고 장소화된 입지를 가진 시설물(박영한 외, 1998)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지역에 또 다른 파급효과를 갖고 있다. 이 경우 대학의 기능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되며, 유·무형의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대학은 상당 액수의 예산과 자금을 강의동이나 실험실, 행정사무용 건물 등 교육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설물을 건설하거나 유지·보수하는데 사용한다. 넓은 캠퍼스를 가진 대학은 도로, 발전소, 상·하수도, 체육관, 학생기숙사 등의 하부구조도 제공한다. 이러한 시설물의 건설 및 관리 자체가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적지 않다. 나아가 오늘날 점점 많은 대학들은 여러 지원시설(예컨대 각종 연구소나 센터, 연구공원 등)

에 활발히 투자하고 있다²⁾. 둘째, 대학의 입지 자체는 지역사회에 지식하부구조를 형성하고 제고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대학의 교수진과 여러 연구소의 지역 내 지식창출 조직과의 상호작용과 네트워킹을 적극 장려하는 대학들은 지식하부구조의 생산에 크게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Ermert, 1997).

끝으로, 바로 같은 맥락에서 대학은 지역의 '창조적' 환경을 창출하는 데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 말하는 지역환경이란 문화의 측면, 공공재에 대한 지역사회의 성향과 수요, 정치적 태도, 기업가적 정신 등을 포함하는 매우 넓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때 특히 주목되는 지역환경의 유형은 유사한 성향의 사람들과 근접하고자 하는 창의적이고 재능 있는 사람들을 지역으로 끌어들이므로써 지역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대학은 이러한 입지동학, 즉 견인력을 창출해 낸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학이 다양한 산출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서 장소성을 발휘하기 때문에, 일련의 외부성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는 대학 밖의 많은 행위주체들도 공유할 수 있으며, 그럼으로써 지역의 사회경제적 이윤을 유발할 수 있다. 이것에는 개인, 기업, 조직, 특히 연구개발기관이 높이 평가하는 독특한 환경 - 지적, 문화적, 사회적, 여가적 환경 - 의 산출도 포함된다. 대학은 그 자체로 규모가 크며, 높은 수준의 공공재와 편의시설에 가까이 비용을 지불하고자 하는 수많은 전문인력을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환경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지대하다(Luger et al., 1997). 이러한 산출은 의도적인 것이 아닌 어떤 의미에서 대학이 행하는 제반 활동의 부산물이라는 점 때문에, 그 가치가 종종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변동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산출 역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우리는 대학을 다양한 산출을 가진 조직으로 개념화했다. 대학은 갖가지 요소를 투입하고 전환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것은 전통적이고 어떤 것은 전혀 새로운 산출을 내놓고 있으며, 내·외적 조절을 거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개념도식과 관련하여 실제 분석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대학은 여러 면에서 일반 (경제)조직과 다르게 운용된다는 점이다. 대학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의 제반 여건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지만, 민간 기업체와 달리 투입비용(내지 가격)이 상승하거나 교육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더라도 쉽게 이동할 수 없다. 따라서 대학은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여 그 산출의 양과 질, 구성(mix)을 변화시키는 등 다양한 생존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물론 대학도 노동력, 하부구조, 각종 편의시설, 대학과 연관된 지식 및 기술의 생산조직 등과 같은, 국지적으로 공급되는 투입을 확보하고 그 질적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입지적 환경을 조성하거나 재편하려고 한다. 둘째, 대학의 산출이 보여주는 구성과 질적 수준, 그 공간적 파급효과는 폭넓다는 점이다. 대학은 일정한 '용량과 도달범위를 가진 체계' (Kapazität-Reichweite-System)이기도 하다(박영한 외, 1998). 특히 대학의 어떤 활동은 국지적 파급효과를 갖지만, 다른 활동들은 완만한 공간경사도로 인하여 훨씬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보여준다. 당연히 특정 유형의 활동이 보여주는 파급효과의 공간적 범위는 대학의 특성과 무관하지 않다. 대학의 규모, 내부 조직의 특성, 대학 소재 지역의 입지적 환경 등은 예컨대 교수나 기초연구, 응용적 기술개발과 같은 서로 다른 중점을 지닌 대학의 외적 파급효과의 공간적 범위와 지향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셋째, 이러한 맥락에서 대학의 다양한 산출간에는 지역으로의 이전 및 그 산출의 증가에 따른 기회비용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기술혁신의 증가는 부수적인 기회비용과 함께 자본재와 인적자원의 추가투입이 필요한 반면, 건물과 하부구조에 대한 투자는 자본재를 요구하지만 인적자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대학이 지역사회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지역의 지식 하부구조에 기여하는 활동에는 그리 많은 비용이 요구되지 않는다.

대학은 여러 활동을 통해 지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지역발전을 유도한다. 대학은 지역에 교육기회의 확대와 양질의 인적자원의 공급, 지역문화의 계발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각종 문화정보의 제공과 건강 및 보건의 향상 등을 통해, 지역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의 향상을 가져 올 수 있다(Mayr,

1979; Otto, 1993). 이와 더불어 우리가 주목할 점은 교수, 연구, 봉사기능과 관련하여 투입-전환-산출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대학과 지역의 연관관계는 피드백(feedback)을 통해 부단히 확대, 재생산된다는 것이다. 지역의 생활수준을 높이는 것이 바로 대학의 위상을 신장시키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우수 교수의 초빙과 신입생 확보가 용이해지며, 대학으로의 새로운 자본 및 시설투자도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

3. 대학과 지역발전의 연구동향

선진 제국에서는 대학을 지역발전의 중요한 모터로 인식하게 됨에 따라, 대학이 지역발전을 위해 어떤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대학과 지역간의 연계망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영미에서는 대학이 전통적인 사회교육 및 봉사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오래 전부터 참여해왔을 뿐만 아니라(이재웅, 1999), 최근에는 대학과 기업체들간의 기술이전 문제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의 교수 및 연구활동과 기업체의 생산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킴으로써 시너지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체제를 지역적으로 구축하고 있다(Florax, et al., 1992; Howells, 1986; Lawton, 1991). 일본에서도 '지학연휴'(地學連携)라는 슬로건 아래 대학과 지역을 산업경제적, 사회문화적으로 결속시키려는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는 대학을 지역사회의 학습장이자 경제발전 센터의 하나로 활용하려는 문호확대 노력에 다름 아니다(飯田正明, 1997; 山口泰久, 1997). 독일에서는 지역발전의 견인차로서 대학의 중요성이 일찍부터 인식되어 대학신설과 육성을 교육정책적 측면뿐만 아니라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전략이라는 틀 속에 넣어 접근해 왔다. 단순히 고등교육기회의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차원을 넘어 대학을 지역의 중심기관으로 지역경제를 안정시키고 그 발전잠재력을 제고시키는데 활용하고 있다(Giese, 1987).

지리학에서는 오래 전부터 대학을 하나의 연구 대상으로 다루어왔다. 대학에 관한 연구는 경제학, 사회학, 교육학, 지역정책학과 같은 여러 분야에서

학제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지리학도 이러한 연구노력에 참여해 왔다. 시대에 따라 대학의 기능이 변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학이 지역과 맺는 관계 및 그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중점도 변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독일어권의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하여, 우선 지리학의 연구대상으로서 대학이 일반 교육지리학의 틀 속에서 어떻게 다루어져 왔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 대학과 지역발전과의 관계 속에서 대학에 관한 연구초점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1) 교육지리학의 성립과 발전과정

지리학에서 교육문제에 대한 연구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가를 규정하기란 쉽지 않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시카고대학에서 '교육적 토지이용' (educational land use)이라는 문제를 다룬 것을 그 기점으로 삼을 수 있다고 주장이 있다 (Meusburger, 1980). 독일어권에서는 1960년대 중반에 각급 학교의 입지, 취학권과 통학로, 교육행동, 경제구조와 교육행동간의 관계 등을 다룬 가이펠 (Geipel, 1965)을 교육지리학의 선구자로 보고 있다 (Wagner, 1993). 특히 인문지리학의 기능론적 단계를 거치면서 교육지리학은 사회지리학 내에서 독자적 연구분과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 내용은 존재기본기능의 하나인 '교육'의 공간적 함의에 맞춰졌다 (박영한, 1984). 물론 이와 같은 규정은 폭넓은 동의를 얻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많은 학자들은 각종 교육시설의 공간구조에 대한 연구가 사회지리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인문지리학의 거의 모든 분과와도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인문지리학의 전체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일종의 기초이론 또는 고찰방식으로서 보다 포괄적인 개념화가 나왔는데, 교육지리학의 주요 과제란 "각종 교육시설의 경제 및 사회공간적 연관관계와 작용을 탐색하고, 기존의 사회경제적 공간구조라는 관점에서 교육기회의 지역적 차이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한다 (Meusburger, 1980: 川田力, 1994).

따라서 교육지리학이 지리학에서 독자적인 연구분과로서 확립된 것은 매우 일천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학과 교육학, 통계학, 인구학, 경제학, 그리고 독일과 프랑스의 전통 지리학에 뿌리를

둔 교육지리학적 연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 교육지리학적 문제제기에 관한 가장 이른 연구로서는 19세기 중반 영국에서 나온 학교입지와 교육수준의 지역차에 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미국에서는 시카고의 사회생태학파가 1920년대에 이미 교육행동을 도시의 내부분화를 파악하는 주요 지표로서 활용하였다³⁾.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교육지리학의 토대를 놓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은 지리학의 몇몇 연구분야와 인접 학문이었다. 19세기 말 이래 종교와 교육수준의 지역차를 다룬 종교지리학, 중요한 중심지 시설로서 교육기관을 분석한 중심지이론, 도농간의 인구이동과 두뇌유출을 검토한 이주연구, 잠재적인 영재(英才)의 지역적 분포 패턴에 관한 심리학과 사회학적 연구 등이 중요하였다. 지난 1950년대 이후에는 혁신과 그 채택에 있어 지역차는 곧 지식 및 정보수준에 있어 공간격차를 뜻하는 것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 쇄신에 관한 연구, 각종 난민과 두뇌유출에 관한 연구, 인적자본을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로서 고찰한 북미 경제학의 인적자본론 등이 교육지리학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교육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된 계기는 1960년대 초 국가 경제력과 경쟁력에 미치는 교육의 중요성을 둘러싼 논쟁이었다. 먼저 인적자본론에 기초한 교육경제학적 연구들은 경제성장에서 나타나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적자본의 육성, 즉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주장하였다. 교육제도의 확대에 대한 요구는 사회수요(social demand)론적 접근방법에 따른 사회정책적 논의에 의해서도 뒷받침되었다⁴⁾. 이러한 논의로 교육체제가 교육연구의 새로운 중점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당연히 대학에 대한 학제적 연구도 활발하게 행해졌다. 그 기초는 전후 사회학자들에 의해 마련되었으나, 그후 경제학자, 지역계획자, 교육학자, 심리학자, 사회지리학자들도 이에 참여하게 되었다. 물론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대학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는 활발하지 않았지만 1970년대를 거치면서 확고히 자리잡게 되었다. 이는 한편으로 교육지리학의 일부로서, 다른 한편으로 학제적 대학연구의 한 요소였다. 1980년대 이후 대학과 관련한 연구 초점은 대학과 기업, 자치단체, 각종 기관 사이의 지식 및 기술이

전에 맞추어지고 있다. 중요한 주제들을 살펴보면, 지식 및 기술이전에 있어 각종 애로사항과 장애 및 그 개선가능성, 기업체 종사자들에 대한 대학의 재교육, 각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기술이전체의 운용방안, 산학간의 인적 교류, 기술 및 창업보육 센터에 관한 연구 등이다. 이와 함께 대학간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 남기 위해 정책적 측면에서 대학의 구조재편과 특성화를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도 적지 않다. 특히 이러한 맥락에서 1990년대 들어서서 독일에서는 교수와 연구, 봉사에 대한 평가문제(대학의 순위)도 집중적으로 다루지고 있다(Heinritz, 1995).

2) 대학과 지역에 관한 주요 연구관점의 변화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1960년대 이후 특히 독일어권에서는 대학과 대학 진학자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그 입지도 확산되면서, 대학에 관한 계획적, 공간적 문제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리학에서도 시대적 상황과 정책적 요구에 부응하여 대학과 지역과의 관계, 특히 대학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 오고 있다. 가이펠(Geipel, 1972), 마이어(Mayr, 1979), 그리고 기제(Giese, 1982: 1987) 등은 대학을 교육지리학적 관점에서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하는 강령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참고문헌까지 폭넓게 제시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주로 대학과 지역발전에 관한 연구동향과 핵심쟁점을 시기별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Fromhold-Eisebirth, 1992: Ott, 1993: Florax, 1992: van der Wusten, 1998)

(1) 지역의 교육요소로서 대학

대학에 대한 학문적 관심사는 대학을 지역의 '교육요소'(Bildungsfaktor)로서 검토하는 데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대학 본연의 기능인 교육의 지역적 의미와 그 파급효과를 파악하고자 했다. 연구의 목표는 동원되지 않은 교육자원을 확인하고, 대학 시설과 관련된 입지를 찾는 데 있었다. 이때 지역노동시장의 질을 제고한다는 관점에서 교육기회를 지역적으로 균등하게 보장하려는 목표가 관건이었다. 특히 경제적으로 낙후된 주변부로부터 젊은 세대의 교육지향적 이출을 대학 설립을 통해 차단하고, 자질 있고 숙련된 인적자원을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고전적 연구로는 각 대학의 취학권에 관한 연구(Geissler, 1965)를 들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연구에서 고졸자의 대학진학 행동에 있어 독일 특유의 '불박이' 경향, 즉 출신고교(고향)에 인접한 대학으로의 진학이 현저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나아가 가이슬러는 각 대학의 입지와 취학권을 파악하여 지도화한 '대학권역'(Hochschulregion)을 획정하였다. 또 다른 연구들은 이러한 대학 진학의 불박이현상과 이것이 전공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요인을 통해 설명하고자 했다. 도시화의 정도, 사회구조, 교통여건과 같은 요인들이 출신지에 인접한 대학으로의 진학을 통한 교육참여에 영향을 미치지만, 근접공간 지향성은 변하지 않는 기본 사실로서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 대학의 공간적 입지망(網)을 구축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대학의 거시적 입지로서는 기본적으로 수요지향적으로, 잠재적인 대학 진학자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선정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제안이 도출되었다.

취학권과 아울러 대졸자의 취업지 선정에 관한 연구들은 지역경제적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어떤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경우, 지역 출신의 젊은 이들에게는 대학에서의 학업을 통해 '과도한 자질 획득'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대학졸업 후 취업을 할 경우, 대학교육을 통해 획득한 자질에 걸 맞는 취업기회를 요구하지만, 지역사회가 이에 상응하는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할 때, 졸업자가 갖고 있는 자질은 지역사회의 현실적 요구수준을 뛰어 넘는다는 것이다. 물론 가족이나 지역사회와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가 장애요인이 될 수 있지만, 타 지역의 견인력과 일자리 공급이 대졸자들에게는 강한 흡인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인구이동을 통한 인재의 유출(두뇌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대학이 지역노동시장에 있어 자질 내지 숙련도를 개선하는데 기여하는 경우는, 지역이 대졸자를 수용할 수 있는 고용여건을 갖출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과도한 자질획득의 부정적 영향이 특히 심각한 곳은 바로 예전에 교육기회가 적었던 지역에 대학이 신설됨으로써 대학진

학이 뚜렷이 체고된 지역이라고 하고, 이들 지역에서는 학업을 마친 대졸자의 이출을 크게 발생하였다고 한다(Rolfes et al., 1990).

이와 관련한 지리학적 연구들은 교육요소의 공간적 측면을 최근까지 꾸준히 고찰해 오고 있다(Nutz, 1991). 그 접근방법은 주로 교육시설의 공간적 분포패턴과 연계관계, 그리고 이것이 경제 및 사회공간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설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교육지리학의 여러 연구들은 교육기관의 입지조건, 공간적 연계관계, 그 사회경제적 작용과 아울러 교육시설 및 교육수준에 따른 일자리의 집중과 분산을 분석하고 있다(Fluechter, 1990).

(2) 도시계획 및 도시발전 요소로서 대학

여타 선진제국처럼 고등교육기회가 지역적으로 불균등하고 그 격차가 크다는 점이 대학 진학률이 낮은 것에 원인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독일에서는 1960년대에 중반 이후 신설대학의 입지선정을 둘러싼 계획문제가 중요한 정책적 이슈로 떠올랐다. 당연히 대학연구도 신설대학의 입지를 탐색하는데 있어 공간적 전제조건이 무엇인가에 맞춰지게 되었다. 이와 함께 대학을 도시 및 지역계획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우선 대학의 입지계획과 관련하여 대학의 거시적 입지요인을 파악하려는 연구가 나타났다. 장차 대학이 입지할 도시의 최소 인구규모, 일정한 도달범위 안에 있는 대학진학자의 최소잠재력, 각종 하구조의 구비정도 등은, 한 지역이 대학을 유치하여 지지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지표로 여겨졌다. 예컨대 토지이용 문제의 경우 대학의 수요와 도시의 장래 수요 사이에 경합관계가 있는가를 파악하고, 만약 그러할 경우 이는 조정되어야 했다. 대학이 장차 입지할 도시나 지역의 주민생활에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영향이 이 단계의 대학관련 논의의 핵심 쟁점이었다.

이어 미시적 입지를 둘러싼 분석들은 이미 선정된 도시 또는 지역 내에서 대학건물의 정확한 위치가 어디이며 그 배치는 어떠한가 하느냐에 관한 것이었다. 도시와 건축적으로, 사회적으로 통합된 이른바 '도시대학'(Stadtuniversitaet)이 바람직

한 것인가 아니면 도시 외곽이나 교외의 넓은 부지에 건설될 '캠퍼스대학'(Campusuniversitaet)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둘러싼 논쟁이 이러한 맥락에서 부각되었다. 도시의 핵심장소에 자리잡고 있는, 도시에 통합된 대학과 달리 캠퍼스대학은 사회경제적으로 도시 내지·지역과의 결합도가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대학이 도시나 지역에 미치는 다양한 작용을 분석한 가장 포괄적인 연구로는 마이어(Mayr, 1979)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학이 한 지역에 대해 창출하는 효용뿐만 아니라, 대학이 입지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문제도 다루어졌다. 몇몇 연구는 대학이 야기하는 자치단체의 하부구조에 대한 추가수요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대학의 하부구조에 대한 요구로서는 부지, 각종 급양 및 수거문제, 대학에 취업하고 있는 기간 및 비기간 인력의 주택수요, 교통서비스, 의료보건·교육·문화·여가 및 스포츠 관련 하구조 등을 들 수 있다. 다소 특수한 연구이긴 하지만, 산업용지로 활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사업소득세를 대학의 설립으로 포기함에 따른 기회비용이 얼마나 되는가를 분석한 연구도 있다. 따라서 몇몇 연구는 대학의 입지에 따른 지역사회의 부담을 금전적인 효용과 비교하여, 그 결과가 종종 부(負)의 값을 나타낸다고 한다(Kuepper et al., 1977). 최근에도 대학과 도시의 통합문제를 다룬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대학의 지속적인 확장은 도시에 새로운 갈등잠재력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학생들의 주거공간이 부족한 것도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대학의 도시통합 문제와 관련하여, 대학의 자문, 평생 또는 계속교육, 각종 정보제공 등을 통한 지역사회에 보다 많은 것을 이전해 주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Ermert, 1997; Felsenstein, 1996).

(3) 지역의 경제요소로서 대학

전술한 것처럼, 1960~70년대를 거치면서 지역정책적 관점에서 교육기회가 부족하고 경제구조가 취약한 지역에 많은 대학들이 신설되었지만⁵⁾, 이러한 대학설립 노력이 당초 설정한 목표에 도달하는 데에는 적잖은 난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신설에 따른 파급효과도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 특히

국가의 재정여건으로 말미암아 신설대학과 기존 대학간에 재정배분을 둘러싼 쟁투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와 따라 기존 대학들과 달리 신설대학들은 그 규모를 확대해 나가는데 많은 계약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과 지역사회간의 상호관련성이 강조되면서, 대학의 지역경제적 의미가 대학연구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대학도 재화와 서비스를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의 고용상황과 아울러 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점이 제기되었다. 이어 대학이 그 소재 지역에 유발하는 고용, 소득, 지출 효과에 대한 분석들이 나왔다 (Voigt, 1996). 특히 1970년대 중반에서 1980년대에 걸쳐 각 대학을 사례로 대학당국과 대학 구성원들의 구매력이 지역에 어떤 파급효과를 미치는가 하는 점이 분석되었다. 결과적으로 대학이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포괄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들 연구는 주로 대학의 건축부문에의 투자, 대학당국이 행하는 각종 구매와 관련된 현금지출, 대학 종사자들이 벌어들이는 소득, 재학생들의 지출 등이 지역에 얼마나 잔류하고 순환되는가 아니면 외부로 유출되는가를 승수효과 등을 통해 분석하였다(Giese et al., 1987). 대학이 지역발전엔 전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히기 위해, 이상적인 대학도시로 분류된 도시군과 그렇지 않은 도시군을 구분하여 각 도시의 경제구조와 역량을 비교한 연구가 나왔다(Seeber, 1985).

이러한 주제를 중심으로 한 개별 연구들은 구조적으로 상이한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긴 하나, 흥미로운 공통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도시 자체는 일반적으로 대학의 금전적인 효과, 특히 일회적인 것이나 도시의 경기에 도약대가 되는 건축관련 투자 및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소득으로부터 커다란 이윤을 얻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금은 주로 역외로부터 유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은 지역으로의 자본유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또한 대학은 수백, 수천 개에 달하는 일자리를 직·간접으로 창출하고 공고히 하는 영향을 미친다고 논의한다. 단 재화와 서비스의 구매와 관련된 현금지출의 경우에는 다소 상이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예컨대 대학의 연구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받는 경우, 계약 금액이 크면 클수록 그리고

수요하는 것이 특수하면 특수할수록, 계약과 금전은 전국 각지로 그리고 대도시를 뚜렷이 지향하는 양상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계약 액수가 큰 연구기자재의 공급에 있어서는 대학소재 지역이 별다른 비중을 차지하지 못한다고 한다. 이렇듯 공간적 근접성만이 아니라 지역의 경제구조 및 대학의 각종 필요를 수용하고 대처할 수 있는 구조적 여건 등도 다양한 방식으로 대학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를 결정하는데 중요하다고 한다. 따라서 대학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대학의 연혁도 하나의 요인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Bauer, 1997; Blume, 2000).

(4) 지역의 혁신요소로서 대학

1970년대 말 이래 지리학을 비롯한 공간과학은 대학의 학술 및 연구활동이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는데 전력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한편으로 혁신지향적 지역정책의 틀 안에서 내생적 지식잠재력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대학에 대한 재정긴축을 타개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대학소재 지역의 경제역량을 제고하는데 대학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탐색하는 노력이 나왔기 때문이다. 특히 연혁이 일천한 신설 대학들은 재정지원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연구이전과 각종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대외적 프로필을 강화함으로써 대학의 지역에 대한 견인력을 확대하고자 노력하였다(Priebe, 1983).

많은 논자들은 공간적 근접성이 지역의 중소기업으로의 대학의 지식이전을 필연적으로 촉진시키고 원활하게 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 방향의 연구에서는 대학이 연구개발 활동을 바탕으로 또 다른 연구기관을 지역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라는 점, 곧 지역에서 노하우의 자기강화적 성장에 시발(Initial)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Schamp et al., 1985). 물론 이미 오래 전부터 대학이 지역으로 연구개발 기업체들의 입주를 견인한다는 가설은 존재하였다. 하지만 그 가설을 실제 기업체의 입지결정과 관련하여 체계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드물었다. 대학의 교육지향적, 지역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경우 연구 및 교육훈련의 정보관련 파급효과만이 제한적으로 다루어져 왔다. 이점은

지역의 각종 자문이나 재교육을 통한 자질개선을 위한 서비스기관으로서 대학의 역할이라는 관점에서 보다는, 오히려 연구지향적 기업체에 대한 견인력이라는 관점에서 이뤄졌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 긍정적인 연구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접근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연구들은 대학이 그 주변 지역과 어떤 정보관련 연계를 맺고 있는지를 자세히 분석한 것이다. 즉, 재교육에 참가한 사람들의 출신지, 중앙도서관의 도서대출의 공간적 도달범위, 그리고 일부 학부(내지 학과)의 업무관계의 공간적 도달범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서, 이러한 관계들이 대학이 입지한 도시권에 분명히 집중되고 있지만, 예컨대 학부의 업무관계에서는 학부의 성격에 따라 다를 뿐만 아니라 상당한 먼 거리까지 작용함이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정보 및 혁신과 관련된 파급효과에 있어 주변지역의 구조적 여건과 대학의 학문분야 사이에 특유의 상관관계가 성립함을 보여주는 것이다(Becker, 1992; Beyer, 1994).

1980년대 이후에는 대학의 혁신과 기술이전에 있어 파급효과 및 그 장애문제가 대학과 지역발전을 둘러싼 주요 연구대상이 되고 있다. 대부분의 분석은 일반대학에 관한 것이지만 전문대학에 관한 것도 있는데,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지역적 파급효과가 일반대학보다 공간적으로 제한될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분리시설을 통한 대학의 파급효과를 다룬 연구도 눈에 띈다(Brackmann, 1993).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구체적인 연구는 많지 않지만, 기술지향적인 기업체의 발생조건과 이를 조장하는 조건이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가 나오고 있다. 대학과의 공간적 근접성이 갖는 의미는 이러한 혁신적 기업집단의 경우 특정 측면과 관련하여 입증되고 있을 뿐이다. 여러 대학에 관한 연구결과는 이와 비슷한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많은 첨단기술 기업의 창업은 대학과의 연계가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론이 제기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의 성장을 통해 많은 기술지향적 용역과 특히 고도로 숙련된 과학인력들을 대학 소재 지역에 묶어둘 수 있다고 한다(Deilmann, 1995; Einsfeld, 1998).

4. 연구과제와 전망

이상에서 간략히 소개한 연구동향에 알 수 있듯이, 독일을 포함한 선진제국에서 대학과 지역발전의 상호 관련성을 꾸준히 다루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지리학적 관점에서 시도된 대학연구는 대학의 입지와 그 분포패턴, 대학의 지역 및 계층 특유의 세력권, 대학교육의 기회(대학생의 밀도, 진학 포기율, 출신지의 변화 등), 도시 내 대학의 미시적 입지, 지역사회의 경제요소로서 그리고 발전모터로서 대학의 역할, 대학생의 지역적 이동양상, 대졸자의 노동시장에의 진입 및 취업구조, 대학교수의 채용·경력·이동, 대학의 견인력과 학자들의 네트워크 등에 걸쳐 있다(Meusburger, 1998).

우리 나라에서는 이와 관련한 연구는 극히 빈약한 실정이다. 다만 안동대학을 사례로 대학의 입지가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박영한, 1995)와 역시 또한 안동대학을 중심으로 대학과 지역사회발전을 교육, 지역문화, 지역경제, 지역정보화, 시민복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 본 연구(남치호 외, 1997), 강릉대학을 대상으로 지방대학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연구(임승달, 1989), 그리고 독일의 대학도시 뮌스터를 사례로, 대학과 지역사회의 결합 및 그 제도에 관한 연구(박영한, 1998) 등이 있을 뿐이다. 물론 대학과 지역에 관한 우리 나라 특유의 연구성과로서는 수도권 인구집중을 억제하는 하나의 수단인 서울 소재 대학의 정원 동결정책과 관련하여 서울 소재 대학의 지방분교가 급속히 설립되면서, 이것이 지역발전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가를 논의한 일련의 논문이 있다(유은수, 1985; 권영섭, 1992; 차기효, 1997). 따라서 이하에서는 대학을 지리학의 연구대상으로 삼고 다룸에 있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주요 연구과제를 제시하고 전망해 보고자 한다.

우선 전통적인 교육지리학의 틀 속에서 다루어진 대학에 대한 지리학적 기초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의 근대적 대학사는 길지 않지만, 단기간 안에 대학의 양적 성장은 괄목할 만하다. 특히 1980년대에 들어 대학설립 기준이 완화되면서 지방으로의 분산화가 진척되면서 입지변동이 컸다. 따라서 대학의 발전과정과 그 입지적 분

포패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대학제도의 변화, 대학의 성장과 설립확대, 지역별 배치의 변화 등을 서로 연관시켜 공간적인 관점에서 이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대학의 설립과 그 시간적 전개과정, 대학의 지역별 분포 및 입지패턴의 변화(공간적 집중과 분산), 입지요인 등의 기초적인 현황조사와 함께 이것이 지역발전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리학적 이해가 요청되는 것이다.

둘째, 대학은 일차적으로 교수활동을 중심으로 운용되며, 그 주된 투입은 학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졸자의 대학 진학률의 지역차, 각 대학의 세력권(신입생의 출신지역 분포)과 대학 입학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진학대학 및 전공 선택의 동기 등도 체계적으로 조사해야 할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대학은 졸업생을 배출한다. 대학과 지역발전이라는 틀 안에서 교육체계에서 직업체계로의 진입과정과 대졸 취업자의 노동시장적 특성, 특히 대학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 취업지를 분석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대학은 신입생을 그 주변지역으로부터 확보하는 것과 아울러 대학에서 육성된 졸업생들을 대학소재 지역의 일자리에 취업시킴으로써, 인재의 지역 내 순환을 강화하여 지역 발전을 유도하는 방향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대졸자는 학업을 마친 후 대학 소재 지역에 잔류하는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이출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논증하기 위해서는 대졸자들이 (지역)노동시장에 어느 정도, 어떻게 편입되고 있으며, 어떤 경로와 이유로 학업을 마친 뒤 대학 소재지를 떠나 타 지역으로 진출하게 되는가를 분석해야 할 것이다. 최근 대졸자의 실업문제와 지방대학 출신자의 취업과정에서의 불이익, 보다 근본적으로는 대학의 진학 및 졸업과 관련한 지방인재의 유출문제(임정덕 외, 1997: 조명래, 1998) 등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 역시 대학과 지역발전과 결부된 지리학적 관심사이므로, 이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대학의 사회, 경제, 문화적인 다양한 파급효과를 지역발전이라는 견지에서 분석해야 할 것이다. 이미 지적하였듯이 대학이 국가 및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대학은 특히 다양한 산출

을 내놓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발전 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대학의 지역경제적 파급효과와 지역활성화에 미치는 영향과 연관시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대학은 지역경제 요소로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대학과 지역 간에 어떤 경제적 연계관계가 성립하는가? 대학의 고용효과와 지역노동시장의 안정화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 대학의 각종 시설투자와 재정지출은 어디로 흘러가며, 그 승수효과는 얼마인가? 이와 동시에 대학이 지역에 미치는 사회·문화적 영향도 결코 과소 평가할 수 없다. 대학이 학술 및 연구활동을 통해 지역문화 발전에 얼마나 기여하며, 지역의 각종 문화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대학의 학부구성이나 연구소 활동에 지역적 특성화가 반영되고 있는가? 오늘날 대학은 중요한 사회교육기관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봉사기관으로서 정보이전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대학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욕구를 충족시키는 평생교육 내지 생애학습의 장으로서 기능하고 있는가? 대학이 설치, 운영하고 있는 이른바 사회교육원의 교육내용은 무엇이며, 이에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어 있는가?

넷째, 최근 들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발전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대학의 기능을 활용하려는 노력이 다각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지금까지 지역경제정책은 대체로 제조업을 유치하여 고용증대와 지역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해 왔다. 하지만 최근의 지역개발 전략은 혁신의 주체로서 대학(및 연구소)과 기업을 동시에 입지시켜 이들 간의 연계를 통해 지역 발전을 모색하는 이른바 '지식중심지 전략'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미 대학에서 기술공원과 연구개발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일반적이다. 대학은 이러한 하부구조를 통해 산학연구에 참여하기도 하고, 신제품 개발과 상품화를 장려하거나 적극 지원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므로 대학이 지닌 각종 노하우와 기술정보, 고급두뇌를 지역사회에 제공함으로써 대학이 지역경제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분석하는 연구와 함께 대학이 첨단기술 지향적인 기업체를 지역사회에 유인하는 과정과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미 많은 대학들은 지역사회와의 다양한 주체들과 연계망을 조직하고 협력관계를 제도적으로 공고히

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식 및 기술이전과 각종 협력체계의 제도적 방안도 살펴보고, 이를 공간적 관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5. 결 론

대학은 고도의 지적 문화를 계승하고 창조·발전시키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대학은 또한 국가와 인류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적 이론과 응용방법을 교수하고 연구하는 기관이다. 그래서 흔히들 교수와 연구는 대학의 두 가지 본질적 기능이라고 한다. 하지만 근래에 와서 사회에 대한 봉사도 대학의 중요한 기능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1980년대를 전후하여 여러 선진국가에서는 산업구조 조정기를 맞이하여 대학이 가진 지식과 기술을 토대로 지역발전에 '혁신요소'로서 그 역할을 크게 강화하기 시작했다. 특히 대학의 지식과 기술, 연구개발의 성과를 지역사회의 기업에 이전하는 산학협동의 양상을 띠며 구체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대학은 지역과 분리될 수 없는 사회조직이자 서비스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다. 대학이 지역발전의 능동적 주체로서, 그리고 지역의 정체성과 이미지의 제고자로서 지역사회에 융합된, 지역을 바탕으로 한 연대의 결정체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대학이 사막의 수도원처럼 지역사회로부터 고립된다면, 봉사는 물론이고 교수와 연구의 기능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대학들은 지역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그 존재이유를 새롭게 확인하고, 지역발전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 동안 우리 나라의 대학은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지역 및 지역의 산업경제적 특성과 긴밀한 연계를 맺지 못하고 특성화가 결여된 양적 성장에 매달려 왔다. 특히 지역별 산업발전 잠재력과 고급전문기술 인력의 수급구조 등과 연계되지 못함으로써, 대학이 지역사회의 교수 및 연구, 지식 및 기술생산의 거점으로서 그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한 것이다. 대학은 교수와 연구라는 전통적으로 확립되어 온 본질적 역할과 책무로부터 크게 벗어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학의 이러한 기능적 함의는 여전히 중요하며 유효하다. 그렇지만 지식사

회에서 대학의 사회적 역할과 함께 그 존립 기반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산업사회의 고도화와 급속한 경제변동 하에서 대학이 인재의 육성과 배출을 통한 노동시장의 공급자이자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바탕이 되는 인적자본의 질적 구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대학의 학술적 연구성과에 대한 기업의 관심도 높아지면서, 대학의 지식 및 기술이전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대학이 사회에 대한 봉사와 서비스에 힘쓰고, 대학을 지역발전에 활용하려는 노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대학의 위기로 표현되는 대학교육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물론 대학의 구조조정, 경쟁력 강화, 개방화, 정보화 등을 둘러싼 다양한 모색이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다.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장차 더욱 더 치열해질 대학간 경쟁에 살아 남기 위해, 대학은 어떤 미래상을 가져야 할 것인가? 아마도 지역과 결합된 특성화된 대학, 지역에 양가추망하는 대학,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대학도 그 비전 중 하나일 것이다. 따라서 대학은 국토공간 전체와 기능적으로 통합된, 하지만 국지적 차원에서 다양성과 독자성을 갖고 지역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그 성격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지리학에서는 그 동안 나름대로 접근방법과 논리적 틀을 갖고 대학을 연구대상의 하나로 다루어 왔다. 이에 따라 선진제국에서는 교육지리학이라는 틀 안에서 대학과 지역의 관계를 다양한 관점에서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하고 있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대학에 대한 연구동향과 관점, 연구방향 등을 정리해 보았다. 대학은 이론적-분석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응용적-정책적 측면에서도 대단히 흥미로운 연구대상이다. 이에 대한 진지한 지리학적 탐색이 요구된다.

註

- 1) 여기서 지역환경은 지역에 자리잡고 있는 주민들과 기관, 조직에 접근 가능한 각종 편의시설이나 하부구조, 기타 공공재를 제공하며, 아울러 국지적으로 다양한 행위

- 주체 및 조직들의 상호작용의 기회를 보장하는 여건을 일컫는다.
- 2) 미국의 경우 많은 대학들이 신규 벤처사업에도 투자하고 있으며, 기부금을 활용하여 위험성은 높지만 대학 경영의 잠재적 수입원으로서, 동시에 대학단지 주변의 개발과 그 질적 수준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상업용이나 주거용 부동산에 투자하기도 한다.
 - 3)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Meusbarger(1998)를 참조하라.
 - 4) 전자와 관련하여 "교육의 위기가 곧 경제의 위기"라는 주장이 나왔고, 후자와 관련하여 저명한 사회학자 다렌도르프(R. Darendorf)의 "교육에 대한 시민권" 문제가 제기되었다.
 - 5) 구 서독의 경우 1990년 초반까지 총 35개의 (공립)대학이 새로 설립되었다.

文 獻

- 권영섭, 1992, "서울소재대학 지방분교가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남치호 외, 1997, 대학과 지역사회발전, 안동대학교 안동지역사회개발연구소, 안동.
- 박영한, 1984, "교육기회의 지역차에 관한 연구," 지리학논총, 11, 1-9.
- 박영한, 1985, "문화와 지역주의: 지방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개발," 한국사회과학연구소(편), 지방의 재발견, 민음사, 서울, 209-228.
- 박영한, 1995, "대학의 입지가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분석," 지리학논총, 25, 1-18.
- 박영한, 1998, "대학과 지역사회의 결합에 관한 제도 분석: 독일의 대학도시 뮌스터를 사례로," 지리학논총, 31, 1-16.
- 박영한·안영진(역), 1998, 사회지리학, 법문사, 서울(Maier et al., 1977, *Sozialgeographie*, Braunschweig, Westermann).
- 안계춘(역), 1992, 대학의 이념과 학문의 윤리, 나남, 서울(Schills, E., 1983, *The Academic Ethic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 유은수, 1985, "지방이전대학의 지역발전 효과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유현숙 외, 1998, 21세기 고등교육 변화와 전망, 한국교육개발원, 서울.
- 이재웅, 1999, "미국 대학의 사회봉사체제와 프로그램 운용에 관한 연구," 21세기 정치학회보, 9(1), 411-437.
- 임승달, 1989, "지방대학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 국토계획, 24(1), 67-90.
- 임정덕·장영재, 1997, "지역 우수두뇌의 유출현상과 지역균형발전," 노동경제논집, 20(1), 91-115.
- 조명래, 1998, "지방화시대의 지역발전과 인재지역 할당제 도입의 역할,"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0(3), 1-18.
- 차기효, 1997, "지방이전 대학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용인 명지대를 중심으로," 청주지리, 13, 21-39.
- 차하순, 1996, "현대 한국대학의 성장과 문제점," 한국사 시민강좌, 제18집, 113-133.
- 大學研究教育を考ふる會(編), 2000, 大學の社會的責任: 大學における學問・教育・人材育成, 丸善株式會社, 東京.
- 飯田正明, 1997, "新設大學の動向と地域振興," 地域開發, 391, 22-27.
- 山口泰久, 1997, "歐美大學の經營理念と地域との連携について," 地域開發, 391, 17-21.
- 失田俊文, 1999, 21世紀の國土構造と國土政策, 大明堂, 東京, 158-176.
- 天野郁夫, 1999, 大學 - 挑戰の時代, 東京大學出版會, 東京.
- 川田 力, 1994, "社會地理學と教育社會學との接點: 教育と社會階層・地域格差の再生産論をめぐって," 人文地理, 46(2), 187-202.
- Bauer, E. M., 1997, *Die Hochschule als Wirtschaftsfaktor* (= Muenchner Studien zur Sozial- und Wirtschaftsgeographie 41), Regensburg.
- Becker, W., 1992, Bedeutung des universitaeren Wissenstransfer als regionaler Standortfaktor: Das Beispiel der Universitaet Augsburg, *Beitraege zur Hochschulforschung*, 3, 489-501.
- Beyer, B., 1994, Regionale Wirtschaftsfoerderung durch Technologie- und Wissenstransfer aus Hochschulen?, *Zeitschrift fuer Wirtschaftsgeographie*, 38, 76-82.
- Blume, L. et al., 1999, Regionale Ausgabeneffekte von

- Hochschulen: Methodische Anmerkungen am Beispiel der Universitaet Gesamthochschule Kassel, *Raumordnung und Raumforschung*, 57(5/6), 418-431.
- Brackmann, H.J., 1993, Wechselwirkungen zwischen Fachhochschule und Wirtschaft in der Region, *Information zur Raumordnung*, 3/1993, 179-184.
- Deilmann, B., 1995, *Wissens- und Technologietransfer als regionaler Innovationsfaktor* (= Duisburger Geographische Arbeiten 15), Duisburg.
- Einsfeld, U. 1998, *Forschungsk Kooperationen zwischen Universitaet und Unternehmungen*, Deutscher Universitaets Verlag, Wiesbaden.
- Ermert, K.(ed.), 1997, *Hochschule und Region - Wirkungen und Wechselwirkungen*, Regburg-Loccum.
- Felsenstein, D., 1996, The University in the Metropolitan Arena: Impacts and Public Policy Implications, *Urban Studies*, 33(9), 1565-1580.
- Florax, R., 1992, *The University: A Regional Booster?* Avebury, Aldershot.
- Florax, R. and Folmer, H., 1992, Knowledge Impacts of Universities on Industry: An Aggregate Simultaneous Investment Model, *Journal of Regional Science*, 32(4), 437-466.
- Fluechter, W., 1990, *Hochschulstandorte und Bildungsverhalten unter Aspekten der Raumordnung in Japan* (= Bochumer Geographischen Arbeiten 52), Ferdinand Schoeningh, Paderborn.
- Fromhold-Eisebirth, M., 1992, *Wissenschaft und Forschung als regionalwirtschaftliches Potential?* (= Informationen und Materialien zur Geographie der Euregion Maas-Rhein 4), Aachen.
- Geipel, R., 1965, *Sozialraeumliche Strukturen des Bildungswesens*, Verlag Moritz Diesterweg, Frankfurt/Main.
- Geipel, R., 1971, Die Universitaet als Gegenstand sozialgeographischer Forschung, *Mitteilungen der Geographischen Gesellschaft in Muenchen*, 56, 17-31.
- Geissler, C., 1965, Hochschulstandorte: Hochschulbesuch: Regionale Herkunft und Bildungswanderung der deutschen Studierenden, *Einzugsraume der wissenschaftlichen Hochschulen 1960/61*, Hannover.
- Giese, E., 1987, Hochschulen als Gegenstand regionalwissenschaftlicher Forschung, in Giese E.(ed.), *Aktuelle Beitrage zur Hochschulforschung* (= Giessener Geographische Schriften 62), Giessen, 1-24.
- Goddard, J., 2000, *The Role of a University in its Region*, CURDS website <http://www.ncl.ac.uk/inireg/heffce/Nu-pybli.ppz>, Newcastle.
- Hall, P., 1997, The University and the City, *Geojournal*, 41(4), 301-309.
- Heinritz, G.(ed.), 1995, *Beitraege zur regionalen Bildungsforschung* (= Muenchener Geographische Hefte 72), Muenchen.
- Howells, J., 1986, Industry-Academic Links in Research and Innovation: a National and Regional Development Perspective, *Regional Studies*, 20, 472-476
- Kuepper, G. et al., 1977, Empirische Analysen zu den regionalen Effekten des Hochschulbaus am Beispiel Saarbruecken, Kaiserslautern, Mannheim und Hiedelberg, *Informationen zur Raumentwicklung*, 3 · 4/1977, 207-265.
- Lawton, S. H., 1991, Industry-Academic Links: The Case of Oxford University, *Environment and Planning C*, 9, 403-416.
- Luger, M. I. et al., 1997, What is the Role of Public Universities in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in Bringham, R. D. et al., *Dilemas of Urban Economic Development* (= Urban Affairs Annual Reviews 47), 104-133.
- Mayr, A., 1979, *Universitaet und Stadt: Ein stadt- und wirtschafts- und sozialgeographischer Vergleich alter und neuer Hochschulstandorte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 Muenstersche Geographische Arbeiten 1), Paderborn.
- Meusburger, P., 1980, *Beitraege zur Geographie des Bildungs- und Qualifikationswesens: Regionale und soziale Unterschiede des Ausbildungsniveaus der*

- Oesterreichischen Bevoelkerung* (= Innsbrucker Geographische Studie 7), Innsbruck.
- Meusburger, P., 1998, *Bildungsgeographie: Wissen und Ausbildung in der räumlichen Dimension*, Spektrum Akademischer Verlag, Berlin.
- Nutz, M. 1991, *Räumliche Mobilität der Studierenden und Struktur des Hochschulwesens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Eine Analyse des Entscheidungsverhaltens bei der Studienwahl und der Einzugsgebiete der Universität* (= Koelner Geographische Arbeiten 54), Koeln.
- Ott, T., 1993, Regionale Effekte einer Neugründung der Universität Erfurt, *Erfurter Geographische Studien*, 1, 161-182
- Priebe, K.P., 1983, Innovationsberatung und Forschungstransfer durch Hochschulen: Eine regional und strukturpolitische Chance? *Information zur Raumordnung*, 5/1983, 2361-369.
- Rolfes, M. and Wenzel, H.J., 1990, *Zur Regionalentwicklung von Hochschulausbildung und Akademischem Arbeitsmarkt* (= OSG-Materialien 17), Osnabrueck.
- Schamp, E. et al., 1985, Universitäten als regionale Innovationszentren? Das Beispiel der Georg-August-Universität Göttingen, *Zeitschrift fuer Wirtschaftsgeographie*, 29(3/4), 166-178.
- van der Wusten, H.(ed.), 1998, *The Urban University and its Identity*, Kluwer Academic Press, Dordrecht.
- Voigt, E., 1996, Die Universität als Wirtschaftsfaktor am Beispiel der TU Ilmenau, *Raumforschung und Raumordnung*, 54(4), 283-289.
- Wagner, H., 1993, *Bildung und Raum: Entwicklung und Strategien in der geographischen Forschungsrichtung* (= Osnabruecker Studien zur Geographie 13), Osnabrueck.

(2001년 8월 3일 접수)